

제8장

두 번째 환상: 일곱 인 심판(1)(6:1-8:5)

이제부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살펴보자. 일곱 인 심판 환상은 타락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한다.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매우 두려워하며 걱정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계시록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기 때문이다.

일곱 인 심판 환상은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 심판 환상과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들 세 심판 환상에는 서로 공통적인 내용들이 묘사된다. 그 공통적인 내용 중 하나로, 이들 세 심판 환상은 모두 ‘번개, 음성, 우레, 지진과 같은 공통된 장면으로 각각 그 내용이 마무리되고 있다는 것이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매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8:8, 일곱 인)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11:19, 일곱 나팔)

일곱 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매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렛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큰 지진이 없었더라(16:17,18, 일곱 대접)

이들 세 개의 심판 환상에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면, 일곱 인 심판과 일곱 나팔 심판에는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재앙 사이에 막간 장면이 삽입되어 있다는 것이다. 왜 이들 심판에는 재앙이 계속 진행하지 않고 잠시 멈추었을까? 이는 타락한 세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일곱 대접 심판에는 막간 장면이 없으며,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재앙들이 진행되어진다. 왜 일곱 대접 심판은 회개의 기회를 주지 않고 연속적으로 재앙이 내려졌을까? 일곱 인 심판과 일곱 나팔 심판 때 하나님은 세상에 회개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고 계속 불의와 악을 일삼고 살았기에 하나님은 세상에 더 이상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신 것이다.

그럼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심판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강도이다. 일곱 인 심판에서는 땅의 사분의 일이, 일곱 나팔 심판에서는 땅의 삼분의 일이, 일곱 대접에서는 땅의 모든 생물이 심판 받아 죽는다. 이와 같이 일곱 인 심판에서 일곱 대접 심판으로 나아갈수록 심판의 강도가 점점 강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심판의 강도 또한 세상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 처음 일곱 인과 일곱 나팔 심판 때 하나님은 세상의 사분의 일, 삼분의 일이라는 일부의 생명체만 죽이심으로 세상에 회개의 시간을 주기 원하셨다. 그러나 그 회개의 기회를 저버리고 계속 악을 행하고 있는 세상에 대해 하나님은 최후의 심판인 일곱 대접 심판을 통해 그 어떠한 긍휼도 베풀지 않으시고 땅의 모든 생물들을 멸하시는 심판을 행하실 것이다.

1. 네 종류의 말과 그 탄 자들

이제 일곱 인 심판 환상에 대해 살펴보자. 요한은 제일 먼저 일곱 인을 떼시는 어린 양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시킨다(6:1).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두루마리에 봉합된 일곱 개의 인을 하나씩 떼어 내신다. 요한은 이 모습을 통해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심판을 시행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강조한다. 즉 이 땅에서 발생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다 예수님의 주권과 통제 속에서 이루어짐을 보여 준다.

먼저 일곱 인 심판 환상은 그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한번 살펴보자. 일곱 인 심판에서 첫 네 개의 인은 나머지 세 개의 인과 구별된다. 첫 네 개의 인 심판은 어린 양 예수님을 경배했던 네 생물에 의해 시작된다. 이들 네 생물은 피조물 전체를 대표하는 생물들이다. 이런 점에서 네 생물은 하나님의 심판이 피조 세계와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즉 타락한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 준다.

어린 양 예수님이 두루마리를 봉한 첫 네 개의 인을 떼실 때 네 생물이 우레 같은 소리로 ‘오라’고 외친다. 이에 흰 말과 붉은 말과 검은 말과 청황색 말과 그 말 탄 자들이 등장하여 이 땅에 여러 재앙들을 내리기 시작한다. 그럼 이 말 탄 자들은 누구인가? 그리고 이들은 이 땅에 어떠한 재앙들이 내리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 스가랴서는 그 네 마리의 말과 그 탄 자들은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며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자들이라고 대답한다.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꼴짜기 속 화석류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주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스 1:8,10)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세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네 째 병거는

어룡지고 긴장한 말들이 매였는지라...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며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스 6:1-5,7).

이 구절들과 관련하여 일곱 인 심판에 등장하는 네 말들의 색깔은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여 준다. 즉 흰 말은 ‘나라 간의 전쟁’을, 붉은 말은 ‘나라 안의 내전과 불화’를, 검은 말은 ‘기근’을, 그리고 청황색 말은 ‘전염병’을 상징함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네 심판은 레위기 26장과 에스겔 14장을 배경으로 한다. 레위기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죄를 지을 경우 그들에게 내릴 벌로 전쟁, 기근, 전염병이 될 것이라 경고하였다.

내 법도를 싫어하고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너희 중에 염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레 26:15,25-26).

에스겔도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의 재앙을 겪게 되며,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을 경고하였다.

내게 범죄하므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겔 14:13,17,19,21)

1) 흰 말과 그 탄 자

이제 네 마리의 말과 그 탄 자들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예수님이 첫째 인을 떼자 활과 면류관을 가진 흰 말을 탄 자가 등장한다. 여기서 활을 가진 흰 말을 탄 자는 파르티아의 기마대를 상징한다. 당시 파르티아의 기마대는 활과 흰 말을 타고 로마의 동부전선을 따라 포진하고 있었다. 파르티아 기마대는 말을 달리면서 허리를 돌려 후방과 측방의 목표물을 공격하였는데, 이러한 활쏘기를 ‘파르티안 샷’이라 불렀다.

역사적으로 파르티아 기마대는 이러한 파르티안 샷으로 당시 2만명의 로마군을 전사시킨 적이 있었다. B.C. 53년에 파르티아의 기마대와 로마군 사이에 한 전투가 벌어졌는데, 파르티아는 파르티안 샷을 능숙하게 구사한 1만명의 기마대를 이끌고 세계 최강의 로마군 4만 3000명과 싸우는 일이 있었다. 그 결과로 2만명이 전사하였고, 로마군은 참패하였다. 그 후로 로마인들은 파르티아인들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로마에는 네로와 관련된 공포스러운 소문이 돌고 있었다. 친위대와 원로원의 반란으로 로마를 탈출하여 자살한 네로 황제가 사실은 죽지 않고 파르티아에 도망하여 곧 파르티아의 기마대와 함께 로마로 쳐들어온다는 것이었다. 이때 요한은 이러한 소문을 이용하여 네 말 탄 자를 등장시켜 하나님의 심판의 심각성을 고취시키고 있는 것이다. 즉 과죽지세로 쳐들어오는 파르티아 기마대의 모습을 ‘흰 말을 탄 자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6:2)고 묘사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맹렬하게 세상을 짓밟을 것인지를 매우 실감 있게 표현한 것이다.

이런 이유로 흰 말과 그 말 탄 자는 나라들 간에 벌어지고 있는 ‘전쟁’을, 말에서 활을 쏘는 기마대의 모습은 강력한 전투력을 의미한다. 이러한

전투력은 아마도 오늘날의 장갑차로 비유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말의 흰 색깔은 ‘승리’를 상징한다. 이는 로마의 황제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식을 할 때에 늘 ‘흰 말’을 타고 등장한 사실에 근거한다. 이와 같이 흰 말과 그 탄 자는 전쟁을 통해 세상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한다.

역사적으로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은 그 주변의 나라들과 셀 수 없는 전쟁을 치루며 살아 오고 있다. 오늘날만 해도 1,2차 세계대전, 베트남 전쟁, 걸프 전쟁, 아프카니스탄 전쟁, 이라크 전쟁 등 여전히 나라들 간의 전쟁은 끝이 없다. 세상은 이러한 전쟁들로 인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였다. 이러한 나라들 간의 전쟁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전쟁들을 통해 타락한 세상을 심판하고 계심을 알 필요가 있다.

2) 붉은 말과 그 탄 자

예수님이 둘째 인을 떼자 붉은 말과 그 탄 자가 등장한다. 그리고 그 말 탄 자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큰 칼을 가지고 사람들 간에 서로 죽이기 시작한다(6:4). 여기에 등장하는 붉은 말도 흰 말과 같이 전쟁을 상징한다. 요한은 붉은 말 탄 자가 갖고 있는 큰 칼을 ‘땅에서 평화를 제하여 버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라고 설명한다. 이것이 그 말 탄 자가 피의 색깔인 붉은말을 타고 나타난 이유이다.

그렇다면 붉은 말도 흰 말과 같이 모두 전쟁을 의미한다면, 이 둘 사이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흰 말이 나라들 간의 전쟁을 상징한다면, 붉은 말은 나라 안의 분쟁과 내란을 상징한다. 역사를 살펴보면 모든 시대 모든 나라에는 언제나 권력 다툼이 있었고, 이러한 권력 다툼은 종종 내란

사태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이는 나라 안의 분쟁이나 내란도 나라들 간의 전쟁들만큼 많은 희생자들을 초래해 오고 있음을 보여 준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삼국 시대, 고려 시대, 조선 시대, 그리고 대한민국으로 나아오는 동안 수많은 내전이 있었고, 이때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는지 모른다.

이런 점에서 나라 안의 내란이나 폭동은 결코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다. 세상이 이기적인 탐욕으로 갖게 되는 모든 불화나 분쟁은 다 하나님의 허락 하에 일어난다. 즉 나라 안에서의 다툼, 분쟁, 폭동, 내란, 전쟁 등은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발생된다. 물론 이러한 분쟁이나 내란은 결코 하나님께서 조장하신 것은 아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인간의 악함을 제한하지 않으신 결과이며, 그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물들이라 할 수 있다.

3) 검은 말과 그 탄 자

어린 양 예수님이 세번 제 인을 떼자 검은 말을 탄 자가 등장한다. 그 말 탄 자의 손에는 한 저울이 들려 있었다(6:5). 저울은 흔히 물건을 달 때 쓰이는 도구이다. 그런데 그 말 탄 자가 양식을 저울에 달아 팔고 있는 모습으로 등장한 것이다. 이는 무엇을 뜻할까? 요한은 네 생물 사이에서 흘러나오는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되로다”(6:6)라는 음성을 듣게 된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임금에 해당된다. 당시 한 데나리온은 밀 여덟 되를 살 수 있는 돈이었다. 그런데 한 데나리온으로 밀 한 되 밖에 살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는 밀과 보리가 평상시보다 여덟 배 또는 그 이상으로 비싸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 준다.

밀 한 되는 보통 노동자 한 사람이 하루에 먹을 양식이다. 그런데 노동자 한 사람이 하루 종일 일해서 자기 혼자 먹을 하루의 양식 밖에 구할 수가

없다는 것은 다른 식구들은 모두 굶을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이러한 모습은 극심한 기아 상태로 양식이 매우 부족한 상태에 놓여 있음을 보여 준다.

그런데 ‘감람유와 포도주는 헤치지 말라’고 명한다. 이는 기근의 상태를 보충적으로 설명하는 말이다. 사람들은 밀과 보리가 너무 귀하고 비싸기 때문에 감람나무나 포도나무를 제거하여 그곳에 밀과 보리를 심고자 하였다. 그런데 감람나무나 포도나무를 제거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밀과 보리가 부족한 상태에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기원후 92 년에 도미티안 황제가 곡식을 선호해 포도원의 반을 철거하도록 명한 적이 있었다. 그 당시 감람유와 포도주는 밀과 보리에 비해 값이 더 비싼 것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미티안 황제가 곡식을 위해 포도원의 반을 철거하도록 명했다는 것은 그 당시 극심한 기근으로 양식이 얼마나 부족하였는지를 잘 보여 준다.

오늘날 식량이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여전히 가난과 배고픔에 시달리고 있다. 얼마 전 아프리카 난민들과 관련된 한 사진을 보았는데, 뼈만 앙상하게 남은 한 어린 아이가 바삭 말라비틀어진 어머니의 젖을 물고 있는 사진이었다. 한 통계에 따르면 하루에 굶어 죽는 자가 7 만명이 된다고 한다. 이는 5 초에 1 명이 기아 상태에 빠져 죽는다고 뜻이다. 그런데 계시록은 이러한 가난과 배고픔은 결코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해결될 수 없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가난과 기근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타락한 세상을 벌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이다.

4) 청황색 말과 그 탄 자

어린 양 예수님이 네째 인을 떼자 청황색 말과 그 탄 자가 등장한다. 그 말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다. 청황색은 시체의 색깔로서 아주 음산하고

기분 나쁜 색이다. 이를 우리는 청황색 말을 탄 자가 어떠한 재앙을 세상에 가져오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 청황색 말을 탄 자는 ‘칼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을 통해 땅의 사분의 일을 죽여 버린다(6:8). ‘땅의 짐승들에 의해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짐승들에 의해 생겨난 전염병에 의해 땅의 사분의 일이 사망하게 된다는 뜻이다.

이러한 점에서 청황색 말은 앞의 세 마리의 말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앞의 세 마리의 말이 ‘전쟁과 기근’을 통해 사망을 가져왔다면, 청황색 말은 ‘칼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을 통해 사망을 가져온다. 이는 청황색 말을 탄 자가 ‘칼(전쟁)과 흉년’에 의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전염병을 통해 사람을 죽이는 것임을 보여 준다.

타락한 인류의 역사는 질병의 역사이라 할 수 있다. 옛날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인류는 질병이나 전염병으로부터 심한 고통과 죽임을 당해 오고 있다. 오늘날 과학과 의학이 아무리 발달하였어도 인류는 여전히 여러 질병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에 세계적으로 발생한 코로나 19으로 인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큰 고통과 죽음을 당하고 있다. 특히 이 전염병으로 죽음을 당한 사람들은 가족들에게 전염시킨다는 이유로 가족들도 보지 못한 채 그냥 땅에 매장되는 현실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런 안타까운 일들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되어질 것이다. 이것 또한 예수님의 타락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발생되어지는 질병이기 때문이다.

2. 요약 및 정리

하나님은 자신과 교회를 대적하는 세상을 전쟁, 내란, 기근, 전염병 등으로 심판을 행하신다. 이러한 전쟁, 기근, 전염병 등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인류는 심한 고통과 비참한 죽음 속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여전히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 어떤 낙관적인 생각에 빠져 살고 있다. 오늘날 사람들은 과학과 기술과 의학 등이 좀더 발전하게 되면, 이 세상은 마치 천국 같은 유토피아가 건설되어질 것이라고 믿어 오고 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세상은 결코 오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타락한 세상은 더욱 고통과 슬픔과 죽음 속에서 지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그러하기에 교회는 세상의 이러한 세상의 재앙들을 목격할 때에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오히려 타락한 세상을 위해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타락한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하며, 죄악된 삶에서 떠나 의롭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재앙 속에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